

# 문대통령, 취임 후 첫 4·19혁명 기념식 참석

### 2년 전 4·19 행사 참석 요청에 약속 지켜

### 4·19 기록물·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대통령 후보 시절에 4·19묘지를 찾았고, 2018년 당시에는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기념식 참석 대신 4·19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당시 4·19혁명 희생자 유가족들이 문 대통령에게 4·19행사에도 자주 참석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2020년 제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2018년과 2019년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왔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결기한 광복 이후 최초의 시민혁명인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해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각계 주요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헌화 및 분향 △국민의례 △4·19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대통령 기념사 △기념 공연 △4·19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기념식은 60주년을 맞아 4·19혁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돌아보고 희생과

헌신을 함께 기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의 대표자 등과 함께 행사장에 동반 입장하고 헌화와 분향을 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의 4·19혁명의 가치와 의미를 높이 평가하며 4·19혁명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는 4·19혁명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이정표를 세운 민주혁명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식민지 국가 중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자 세계 학생운동의 시작점이라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정부는 2022년을 목표로 기록물·유산 등재를 추진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4·19혁명

민주영령들의 희생과 정신을 세계인과 함께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기념공연에서는 60년 전 오늘날은 국민이 단합해 민주주의 위기를 이겨냈던 것처럼 다함께 마음을 합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상록수 2020' 음원을 공개했다.

'상록수 2020'은 가수 김민기씨가 작곡한 '상록수'를 김형석 음악감독이 2020년 버전으로 새롭게 편곡한 곡으로 강산애, 김조한, 김필, 나윤권, 리봄, 조이(레드벨벳), 뮤지, 바다, 백지영, 제아(브라운 아이드걸스), 산들(B1A4), 비지, 규현·려욱·예성(슈퍼주니어), 알리, 에일리, 유아(오마이걸), 오연준, 윤도현, 솔지(EXID), 이은미, 타이거JK, 범규·수빈·연준·태현·휴닝카이(TXT), 하동균, 홍진영 등 총 34명의 국내 가수들이 참여했다.

이번 기념식은 신종 코로나바이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헌화 후 참배하고 있다.

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당초 2500명 규모로 추진하려 했으나 200여명 규모로 축소해 진행했다. 최근 14일 이내 외국 방문자,

고위험군 등에 대해 참석 자체를 안내했고, 유공자 및 유족 등과 함께 의미 있게 엄수했다.

김윤호 기자

## 당선 이틀만에...민주당 초선 “바쁘니 짧게 하자”



광주시와 21대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17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15 총선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광주시가 겹겹이 쌓인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한 초선 의원의 불성실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오후 2시 광주시청 중회의실, 광주시와 21대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노동계 불참 선언으로 위기에 처한 '광주형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 당선인과 광주시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였다.

이용섭 시장은 "선거가 끝난 지 얼마되지 않아 매우 바쁘실텐데

우선적으로 광주시와 정책간담회 해주시 것 감사드립니다"며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 발전에 노력하시겠습니다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눈물 닦아주고 목소리 없는 분들의 목소리 대신하는 정다운 정치 펼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선인들도 차례로 돌아가며 인사말을 통해 포부와 계획을 밝혔다.

송갑석 시당위원장은 "불과 이틀 전 선거가 끝났음에도 이런 자리를 가진 건 그만큼 광주시 현안이 많고 당선인 신분임에도 현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라는 시민들

의 요구"라며 "혼자가 아닌 든든한 동료의원들과 더 큰 힘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언자는 이병용 동남을 당선인 그는 "인사만 하다 회의 다 끝나겠다. 중복을 피해 다른 말 않겠다"며 목소리 톤을 깔고 자신의 2008년 경험을 얘기했다.

"제가 2008년 아시아문화도시 추진단장을 하면서 한 광주 국회의원에게 찾아가서요. '예산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 의원이 뭐라고 얘길 하나, '우리 지역구 예산 아닙니다'. 해서 '아니 이런 답답한 놈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당선인은 이어 "제가 3시에 방송 될 약속이 있어가지고 건의 드리는데, 이거 다 읽어봤자 들어오도 안해요. 다 집에가서 보면(된다) 아이큐 3자리 이상이니, 광주형일자리에 대해서만 간결하게 해서 현안 문제만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당선인의 말이 끝나자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약속 있으니까, 짧게 하고 끝내자'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 여야 '안내견'으로 협치 시작?...본회의장 출입 허용 요구

### "국회는 성스러운 곳도 속되 곳도 아니고 그냥 다수가 모인 곳일뿐"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인 김예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허용을 국회사무처가 '검토'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여야 인사들이 출입을 허용하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서울 동작을)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내견은 시각 장애인들의 눈이자 발이며 동반자이다. 어디를 가든 함께 있어야 한다"며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

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장 등 회의장에는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국회의장이 허가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 국회법 제148조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2004년 17대 총선 때 당선된 첫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정화원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의 경우 당시 안내견과 함께 본회의장에 입장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회 측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안내견이 아닌 보좌진의 안내를 받아 출입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당선인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검토'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며 "장애물이 없는 환경을 만든다는 데 국회가 예외일 수 없다. 어느 곳보다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 서야 할 곳이 국회"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 국회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며 "안내견 '조이'는 오히려 사람을 도와 '사람 국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6선의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내견의 본회의장 출입 문제는 "(국회가) 고민할 일 아니다"라며 허용을 촉구했고 "국회는 성스러운 곳도 속된 곳도 아니고 그냥 다수가 모인 곳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안내견 '조이'의 본회의장 출입 허용을 촉구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비장애인 의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며 "21대 국회는 그때보다는 진보한 국회이길 기대한다. 앞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더 많이 국회에 입성해 다양한 국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